

APEC의 WTO/DDA에 대한 기여

2006. 11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태호

I. APEC과 WTO

- 1993년 처음으로 경제지도자회의를 개최하기 시작했던 APEC은 당시 난항을 겪고 있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1993년 11월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근처 Black Island에서 개최된 APEC 각료회담과 경제지도자회담(정상회담)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1993년 12월 15일까지 반드시 종료되어야 한다는 강한 결의를 담은 선언문을 채택함.
- 당시 농산물 협상에서 보조금 삭감과 관련하여 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유럽공동체(EC)는 APEC의 단합된 의지를 고려해 미국과 타협(Blair House Agreement)을 성사시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즉 이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던 우루과이라운드가 돌파구를 찾게 되었으며 12월 최종 타결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임.
- 미국이 1993년 말 NAFTA를 타결시킨데 이어 APEC 경제지도자회의(정상회담)를 개최함으로써 대 EC 협상력을 확대시킬 수 있었다는 것임.

- APEC은 1995년 WTO가 공식 출범한 후에도 여러 채널을 통해 WTO 중심의 다자간교역체제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많은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음.

- 경제지도자회의(AELM)를 통한 정치적 지원, 무역관련 장관회의(MRT)와 각료회의(AMM)를 통한 각료차원의 노력, 무역투자위원회(CTI)와 각종 분과위원회를 통한 실무차원의 과제 이행 등
- CTI 산하에 있는 여러 분과위원회들(서비스 그룹, 지적재산권 그룹, 시장접근 그룹, 원산지규정 그룹, WTO Capacity Building 그

롭 등)은 대부분 WTO 중심의 다자간교역체제 지원을 위한 작업을 지속해 오고 있음.

- APEC은 그 자체 목표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무역과 투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인 만큼 WTO와 여러 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음. 그러나 APEC은 WTO와 같이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기구가 아닌 만큼 WTO 고유 업무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APEC 자체 내에서의 무역자유화도 자발적인 접근방법으로 시도 되었으나 별다른 결과를 생산해 내지 못 했음.
- 그러나 WTO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분야의 협상에 APEC 차원의 아이디어나 접근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하겠음.

II. WTO DDA 협상의 중단

1. DDA 협상 경과

- 2001. 11: 제 4차 WTO 카타르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 출범
- 2003. 3: 분야별 협상세부방식(Modality) 초안에 대해 합의실패
- 2003. 9: 제 5차 WTO 칸쿤 각료회의에서 협상기본골격 (Framework) 합의실패
- 2004. 7: 협상세부원칙 관련 기본골격 합의도출
- 2005. 12: 제 6차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일부쟁점 합의
 - 최빈개도국에 대한 혜택 허용,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시한(2013), 2006. 4월까지 협상세부방식 도출, 2006. 6월까지 이행계획서 작성 합의
- 2006. 6: 협상세부방식 초안 제시
- 2006. 7: G8 정상회담(7. 15-17)에서 돌파구 마련시도 실패
- 2006. 7: G6 각료회의(7. 23-24)에서 3대 쟁점에 대한 의견절충 실패
 - G6: 미국, EU, 호주, 일본, 인도, 브라질
 - 3대 쟁점사항(Triangle issues): 농산물 시장접근,

농업보조금,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 2006. 7: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 DDA 협상 중단(Suspension) 선언(7. 24)

2. DDA 협상 중단의 주요 요인

- 기본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주요국들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음으로써 협상중단이 불가피해짐.
 - TNC는 2006. 7. 1 사무총장에게 농산물 시장접근과 NAMA에 대한 협상세부방식(Modality)이 빠른 시일 안에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
 - 사무총장이 G8 정상회담과 G6 각료회담을 통해 정치적 결단과 의견절충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감.
 - 농산물 시장접근과 농업보조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NAMA에 대한 논의는 하지도 못함.
 - 농산물관세 감축, 농업보조금 감축, 민감 품목 수 등에서 미국과 EU, G20 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임.
- 특히 미국과 EU간에 농산물에 대한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음으로 NAMA에 대한 Modality 조차 합의를 이루기 어려워짐.
 -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치뤄야 하고 EU는 신규가입 회원국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정치적인 측면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총장은 2006년 12월 협상시한과 일괄타결 (Single-Undertaking) 원칙을 감안할 때 더 이상 협상을 진전시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하여 협상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보임.

3. DDA 협상 중단의 파급효과

- DDA 협상의 중단을 실패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다고 봄. 그러나 이번 협상 중단은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무역체제의 신뢰도에

커다란 타격을 가져다준 것임에는 틀림이 없음.

- 그렇지 않아도 의사결정정차의 효율성과 투명성 등 근본적인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 중단됨으로써 WTO는 출범이후 가장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됨.
 - 특히 DDA가 개도국을 WTO체제로 끌어드리려는 중요한 협상인 만큼 이번 협상중단은 개도국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가져다 줄 것임.
- DDA 협상의 중단은 WTO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소위 지역주의의 고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보임.
- 많은 나라들이 FTA나 RTA를 WTO 보다 더 중요한 통상체제로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 동아시아에서도 그러한 현상은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FTA 체결 경쟁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 보임.
 - 미국과 EU도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 특히 동아시아가 지역주의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지역주의의 고조는 궁극적으로 비회원국을 차별하게 되는 보호무역주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세계통상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 이렇게 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음. 농산물을 비롯해 우리 시장의 개방이 당분간 늦춰져 부담이 적어지는 측면도 있으나 우리의 수출시장이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 경우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임.
- 결론적으로 당분간 세계무역환경은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됨.

4. DDA 협상의 향후 전망

- WTO 사무총장이 특정시한을 언급하지 않고 협상의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 일단 금년 말 안에 협상이 타결될 확률은 거의 없어 보임.
 -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입장이 재정립될 수 있기 때문임. 미국뿐 아니라 브라질 대선 및 총선(10월), 프랑스의 대선 및 총선(2007) 등 주요 국가들의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빠른 시한 내에 협상이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만일 미국의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TPA의 연장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렇게 될 경우 DDA 협상은 상당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임.
- 그러나 DDA의 실패가 가져올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어떤 형태로든지 협상을 종결시키려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노력이 있을 경우 2007년말 까지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있을 것임.

III. DDA 협상 진전을 위한 APEC의 기여

1. 현재까지의 기여

- DDA 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상 출범부터 APEC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 채널을 통해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지원해 오고 있음.
 - 2001년 APEC 각료회담(AMM)과 무역관련 장관회의(MRT)에서는 WTO의 새로운 협상(New Round) 출범을 강하게 지지한 바 있

음. 특히 무역자유화 확대, WTO 규범강화, 개도국의 관심사항 반영 등에 대해서 APEC 차원의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하였음.

- 2002년에는 APEC 경제지도자회의(정상회의: AELM), AMM, MRT를 통해 DDA 협상의 순조로운 진행위한 지지를 표명하였음. 특히 농업분야의 개혁, 비농산물 및 서비스의 시장접근 확대,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대한 규범 강화, Singapore 이슈 논의, 2005년 1월 협상시한 준수 등을 위해 APEC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선언함.
 - 2003년에도 APEC은 AELM, AMM, MRT를 통해 DDA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전되기를 희망하였으며 특히 Cancun에서 열릴 WTO 각료회담이 DDA 협상을 보다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선언함. 또한 APEC은 자유무역협정(FTA)나 지역무역협정(RTA) 등 여러 채널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진전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다자간무역을 자유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APEC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2004년 APEC 회의는 Cancun 각료회담의 실패를 상기하며 DDA 협상 참여 노력을 배가해야 함을 강조함. 특기할 만한 것은 APEC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무역원활화분야를 DDA 협상분야로 포함시키고 APEC의 기여를 강조함.
- 2005년 APEC AELM은 DDA 협상에 대한 별도의 선언문을 채택하여 DDA 협상이 2006년말 까지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타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준비가 있음을 천명함.
- DDA 협상이 당초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세계무역의 50%,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APEC 회원국들의 지도자들은 DDA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DDA 협상관련 별도의 선언문을 채택함.
- APEC 지도자들은 새로 설정한 2006년 시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05년 12월에 열리는 홍콩 WTO 각료회담에 많은 진전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 농업분야에서의 포괄적인 합의(무역을 왜곡하는 보조금의 실질적인 삭감, 관세인하 및 수량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접근의 실질적인 개선,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금을 2010년까지 철폐), 스위스 공식을 근거로한 비농산물의 시장접근 확대, 서비스교역의 의미 있는 시장접근확대, WTO 규범의 강화, 무역원활화를 위한 WTO 규범의 개선 등에 대한 합의가 시급함을 강조함.
 - 특히 모든 분야의 협상의 진전을 가로 막고 있는 농산물 분야의 협상 타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함.
- 2006년 6월에 열린 APEC의 무역관련 장관회의(MRT)에서는 농산물 분야에서의 협상 진전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농산물과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분야의 합의가 6월말까지 이루어져함을 강조함.
- 따라서 6월 말까지 농산물과 NAMA 분야에서 실질적인 시장접근의 개선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즉 NAMA 분야에선 스위스 공식에 적용할 계수를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농산물 분야에서는 과감한 보조금 삭감과 시장접근 확대,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금을 2013년 까지 철폐하는 것들을 조속히 합의해야 함을 강조함.
- 이렇듯 APEC은 WTO/DDA 협상을 위해 다양한 차원의 회의를 통해 지원해 왔으며 무역원활화, NAMA, 개도국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서는 협상의 진전에 구체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APEC의 WTO/DDA 지원과 분야별 구체적 기여는 APEC이 세계 무역과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 60% 정도임을 감안할 때 결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 그러나 APEC의 기구상 성격이 협력체인 만큼 자체 무역 및 투자 자유화 확대에도 어려움을 보여주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APEC의 노력이 과연 실제 DDA 협상의 진전에 얼마만큼 효과적인 기여를 했는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 또한 DDA 협상의 진전을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농산물 분야에서는 막강한 협상력을 가진 유럽연합(EU)이 타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 경우 APEC 전체 차원의 역할이 적을 수밖에 없음.

2. 앞으로의 기여

- 1948년에 일반협정 형태로 출범한 GATT체제로부터 확대 개편된 WTO가 출범 10여년 만에 DDA 협상의 일시 중단이라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음. 주요 참여국들의 정치일절 등을 감안할 때 DDA 협상이 빠른 시일 안에 재개될 확률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음. 반면 DDA 협상이 한 없이 표류할 경우의 비용을 감안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종결되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이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환경은 당분간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게 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상황에서 APEC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보다도 DDA 협상 전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농업분야의 협상을 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 될 것임. 그러나 이러한 일이 쉽지만은 아닐 것임. 즉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농산물 분야의 협상이 끝까지 난항을 겪고 있는 핵심 이유가 미국, EU, G20(농산물 수출 개도국 그룹)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APEC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G20에는 중국, 멕시코, 칠레, 태국, 필리핀 등 APEC 회원국들이 포함되어 있고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와 브라질도 포함되어 있음. 우선 EU는 차치하고라도 APEC 회원국인 미국이 같은 APEC 회원국인 중국, 멕시코, 칠레, 태국, 필리핀과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음. 더구나 미국과 G20에 속해 있는 APEC 회원국들 간의 입장차이가 좁혀진다고 하더라도 G20에 속한 인도와 브라질 등 협상력이 큰 국가들과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농산물 분야의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또한 일본, 한국, 대만 등은 APEC 회원국이면서 농산물 수입국 모임인 G10에 속해 있으면서 나름대로의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따라서 APEC이 DDA 협상의 돌파구를 찾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즉 DDA 협상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미국, EU, G20의 주요국들 간에 정치적인 결단과 타협이 필수적이라 하겠음.
-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PEC은 DDA 협상 재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무역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APEC에게는 WTO 중심의 다자간교역체제가 제대로 작동해하는 것이 회원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임. 또한 세계 GDP의 60%가량을 차지하는 APEC으로서는 세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더 큰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력도 매우 크다고 하겠음.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번 달 중순에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APEC 지도자 및 각료회담은 DDA 협상의 진로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될 것임.
 - APEC 지도자회담(AELM), 각료회담(AMM), 무역관련 장관회의(MRT)는 최우선적으로 DDA 협상재개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주요국들의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선언을 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선언이 정치적 선언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APEC 회원국들 간에 농산물, NAMA 등 핵심분야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즉 선언문에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APEC이 이러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 멕시코, 칠레, 태국, 필리핀 등이 농산물 분야의 협상이슈와 NAMA와 관련해서 포괄적인 패키지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음.
 - 또한 APEC이 비교우위가 있는 개도국 이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개도국들의 DDA 협상참여를 독려시켜야 할 것임. DDA 협상 결과가 개도국들에게 커다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APEC이 기여해야 할 것임.
- APEC은 이러한 정치지도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여러 분과위원회와 실무워킹그룹이 논의해 온 DDA 협상 및 다자간교역체제 지원 방안을 계속해야 할 것임.
 - 특히 무역원활화에 대한 APEC의 전향적인 접근방법, 서비스 그룹에서 노력해 온 WTO 서비스교역에 관한 규범(국내규제, 보조금,

정부구매,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에 대한 제안, 시장접근그룹에서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입장 등은 계속해서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DDA 협상, 나아가 WTO 체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최근에 APEC이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 온 APEC 내 Best Practice for RTAs/FTAs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이는 역시 WTO체제와 일관성 있는 RTAs/FTAs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임.
 - 최근 APEC 회원국들 간에도 여러 개의 RTAs/FTAs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APEC의 Best Practice 제시는 DDA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WTO 체제에 도움이 될 것이며 DDA 협상이 장기간 표류할 경우 예상되는 RTAs/FTAs 확산에도 대비를 할 수 있게 될 것임.
- 끝으로 지난 2005년 AELM에서 채택한 Busan Road Map to Bogor Goals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WTO 체제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APEC 차원에서 추진해 온 Collective and Individual Actions을 한 층 더 강화시킴.
 - 개도국을 위한 각종 Capacity Building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pathfinder approach를 활용해 여러 분야의 협력 프로그램에 더 많은 회원국들의 참여를 유도 하는 것이 바람직함.

IV. 결어

- 지난 7월 24일 DDA 협상 중단이 선언되면서 DDA 협상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졌으며 동시에 WTO는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였음. 이로 인해 세계교역환경은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 많은 나라들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양자간 또는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상황임.

- 그러나 FTAs/RTAs가 WTO 중심의 다자간 교역체제를 결코 대체할 수 없으며 또한 대체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DDA 협상의 재개는 WTO 모든 회원국들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임.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는 DDA 협상이 실패하는 경우 가장 큰 경제적인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무역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APEC에게도 DDA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APEC이 DDA 협상을 극적으로 재개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번 11월 중순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 지도자회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음. 1993년에 개최된 처음으로 APEC 경제지도자회의가 농산물분야 협상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진전시키는데 기여했음을 상기할 이번 베트남 APEC 지도자회의에 큰 기대를 해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과 금번 DDA 농업협상은 근본적으로 다른 역학구조를 가지고 있어 APEC 지도자들의 획기적인 정치적 결단이 없이는 APEC이 DDA 협상을 재개 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것임.
 -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미국과 EC가 농산물 협상에서 핵심적으로 참여하였으나 금번에는 이 들 국가 외에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여러 국가들이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 인도, 브라질은 과거와는 다른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금번 APEC 지도자회의에서 회원국들 간의 입장이 조율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DDA 협상 실패의 비용, 특히 APEC 회원국에게 다가올 비용을 생각하면 지도자들의 결단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해 봄. 무엇보다도 DDA 협상을 성공적으로 종결함으로써 개도국에게 많은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함.
- APEC은 이번 베트남 회의를 통해 지금까지 여러 분과위원회와 실무워킹그룹이 논의해 온 DDA 협상 및 다자간교역체제 지원 방안을 계속해야 할 것이며 APEC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위해 추진해 온 과제들을 실질적

으로 진전시켜 나감.

- 특히 개도국 이슈, 무역원활화, 서비스교역의 규범강화, 전자상거래, Best Practice for RTAs/FTAs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Busan Road Map to Bogor Goals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며 Collective and Individual Actions를 강화하고, Capacity Building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pathfinder approach를 활용해 여러 분야의 협력 프로그램에 더 많은 회원국들의 참여를 유도 함.
- APEC은 지금까지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음. 그러나 APEC 내에서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WTO 수준 이상으로 추진시키지는 못했음. APEC이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DDA 협상을 재개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APEC이 이미 정해 놓은 Bogor Goals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야 할 것이다. 즉 구속력이 없는 협력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전을 보일 때 APEC에 대한 신뢰는 높아질 것이며 DDA 협상에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참고자료

강문성,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문 채택의 의의와 향후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KIEP, 04-18, 2004. 8.

서진교,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도출 실패와 향후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KIEP, 06-13, 2006. 5.

서진교, 송유철 “DDA 협상중단의 영향과 향후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KIEP, 06-23, 2006. 7.

APEC, Economic Leaders' Declaration and Statement, various years.

APEC, Ministers Statement, various years.

APEC, Chair's Statement,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various years.